



CHOI MYOUNG YOUNG

보도자료 2022-04-21

2022.04.21 - 2022.05.29

- 더페이지갤러리에서 3년 만에 개최되는 세번째 대규모 개인전
- 구작 드로잉부터 오일 롤러 페인팅, 2022년 최신작 대형 회화 작품까지 수십 여년에 걸친 작가의 '평면조건' 탐구를 망라하는 50여 점 전시
- 오리진(Origin), 한국아방가르드(A.G)협회를 거쳐 한국 단색화단의 형성에 참여한 최명영의 예술과 삶에 관한 인터뷰 영상 추후 공개 예정

더페이지갤러리는 4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십 년간 회화의 '평면 조건'을 실험하고 탐구해온 최명영의 개인전 <CHOI MYOUNG YOUNG>을 개최한다.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롤러를 사용하여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수십 회 반복 도포한 구작부터, 화면에 수직과 수평의 선을 반복적으로 그리며 층위를 생성한 작업, 그리고 손가락으로 평면 위에 물감을 일정한 패턴으로 문지르는 최근 작업까지 망라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표현 양상의 실험으로 제작된 드로잉 소품 또한 수십 점 공개되어, 1970년대부터 전개된 최명영의 일관된 회화 탐구와 예술 철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평면 위에 수차례 쌓아 나가는 성찰적 작업 방식을 통해 일군 그만의 고유하고 깊은 평면에서 치열한 예술적 통찰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갤러리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가의 스튜디오 및 인터뷰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Choi Myoung Young> 전시는 서울숲 더페이지갤러리 EAST관에서 진행되며, WEST관에서는 최비오 개인전 <Vio Choe: Observer>가 5월 29일까지 동시 개최된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사전 무료 예매 후 관람이 가능하다.

- ▶ 공식 웹사이트 www.thepage-gallery.com
- ▶ 인스타그램 계정 @thepage_gallery
- ▶ 네이버 예약 페이지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428735>



ARTIST

1941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최명영은 6·25 사변 때 월남하여 군산, 인천 등지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1957년 국립인천사범학교에서 정상화 작가의 미술 지도를 받고 화업의 길로 들어섰다.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및 1964년 졸업 이후 오리진, 청년작가연립전,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에꼴드서울 등 한국 화단의 흐름을 주도한 주요 미술 단체의 창립 멤버로 활약하였고, 파리,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참가하였다. 1970년대 중반 '단색화'의 형성에 참여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 전개에 동참해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했으며 현재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최명영은 더페이지갤러리, 동경화랑, 조현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청년 작가 시절 파리 비엔날레, 뉴욕 브루클린미술관 등의 그룹전에 참가한 이후 파리 페로탱 갤러리,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가졌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도쿄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RTWORKS

‘평면 조건’은 작가가 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작업 명제로, 물성과 정신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한국 단색화의 주요 기조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개별 작가로서의 최명영을 구분 짓는 정체성과 같은 키워드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대상의 형태를 재현하는 회화에 의문을 품었던 학부 시절부터 작가가 끈질기게 탐구해온 것은 2차원의 평면 그 자체로서 회화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회화적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조형적 특성을 1) 균질한 표면 2) 환영과 중심이 부재한 화면 3) 작가의 반복적 행위 4) 표면에 닿는 질료의 접촉감 5)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중성적 색채 6) 겹겹의 층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공간 등으로 파악하고, 여러 수용과 변용 과정을 거치며 실험적인 작품으로 이를 구현하였다.

黑 79-38 (Black 79-38)

1979, Oil on canvas
73 x 90 cm



롤러를 이용한 작업은 작가가 평면 조건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평면 위에 물감을 반복 도포하여 층위가 생겨나고, 롤러에 의해 모서리로 밀려난 물감이 평면의 제한된 공간을 확장한다.

Conditional Planes 8029

1980, Oil on canvas
70 x 114 cm



Conditional Planes 18-12

2018, Acrylic on canvas
112 x 162 cm



수직과 수평의 선을 반복 교차한 작업은 씨줄과 날줄을 엮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선이 교차되며 화면에 드러나기도 소멸되기도 하며 층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반복적으로 선을 그리는 행위는 화가의 몸을 드리는 수행의 정신성을 더한다.

Conditional Planes 21-105

2021, Acrylic on canvas
194 x 162 cm



Conditional Planes 22-210

2022, Acrylic on canvas
120 x 120 cm



손가락으로 물감을 일정한 패턴으로 문지르는 작업 역시, 신체와 질료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물감, 캔버스와 같은 물질적 재료에 노동, 감정, 시간의 정신적 층위를 더한다. 또한 최근작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캔버스의 바탕, 즉 '소지(素地)'를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물감이 칠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한 것이다. 물감이 닿지 않은 부분까지 회화로서 제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은 동양적 사유와 미학과도 관계되며, 작가와 질료 사이의 호흡의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형성한다.

BIOGRAPHY

최명영 (崔明永 CHOI MYOUNG YOUNG)

1941 황해도 해주 생

196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졸('74)

개인전

2019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00 동경화랑, 동경

1986 동산방화랑, 서울

1986 INAX 갤러리, 동경

1980 무라마쓰 갤러리, 동경

1976 서울화랑, 서울

외 다수

단체전

2021 형영形影, 시방十方 (추사 김정희, 이우환, 최명영, 최인수),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7 한국미술의 산책 Ⅱ - 단색화전, 뮤지엄산, 원주

2016 ORIGIN (최명영, 이승조, 서승원), 갤러리 페로탱, 파리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수행과 시방 (추사 김정희, 윤형근, 최명영) 공간퍼플, 헤이리

2008 한국의 추상회화: 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2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정신으로서의 평면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1996 1970년대 한국의 모노크롬, 현대갤러리, 서울

1984 휴먼 도큐멘타 '84/'85전, 동경화랑, 동경

1981 한국현대드로잉전, 브루클린미술관, 뉴욕

1975 인도 트리엔날레, 뉴델리, 인도

1970 한국아방가르드협회전, 중앙공보관화랑, 서울

1967 파리 비엔날레, 파리

1963 오리진회화협회전, 서울

CONTACT

이은주 디렉터 eunju@thepage-gallery.com

채현진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thepage@thepage-gallery.com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